

# 바슐라르의 Logosphère와 언어적 몽상

홍 명 희  
(경희대학교)

## 1. 들어가는말

바슐라르에게 있어서 언어는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과학철학에 관한 그의 연구에서 언어의 모호성은 지양하고 타파해야할 문제였지만, 상상력과 이미지 연구에 있어서 언어의 모호성은 상상력의 원천적인 힘으로써 인식된다. 바슐라르에게 있어서 언어는 상상의 과정 속에서 그 자체로 원초적인 가치를 가지기도 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이미지를 형성하기도 한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바슐라르가 이미지와 상상력을 연구하면서 가장 빈번히 차용했던 것은 문학 이미지이다. 그는 문학이야말로 진정한 상상력 연구의 장이라 여겼으며, 말과 문장이야말로 상상력의 발현에 핵심을 이루는 요소라 생각했다.<sup>1)</sup>

문학이미지의 언어는 상상력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그것은 문학 이미지들이 몽상 속에서 상상력의 원천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바슐라르에게 있어서 몽상은 “글로 쓰여지는 몽상, 내지는 최소한 글로 쓰여

---

1) Finalement, le véritable domaine pour étudier l'imagination, ce n'est pas la peinture, c'est l'œuvre littéraire, c'est le mot, c'est la phrase. 결국, 상상력을 연구하기 위한 진정한 영역은 그림이 아니라 문학작품이며, 말이며, 문장이다. G. Bachelard, *L'Eau et les rêves*, p. 252

지기로 약속된 몽상”<sup>2)</sup>이다. 이 ‘글로 쓰여진 몽상’은 바로 언어로 이루어진 몽상이다. 바슐라르에게 있어서 몽상은 언어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sup>3)</sup> 그에게 있어서 모든 몽상은 언어의 몽상으로 환원되는 몽상이다.

Mais nous reviendrons par la suite sur ce renversement d'être que le rêveur apporte au monde contemplé par le peintre qui voit beau. Mais du monde au rêveur le renversement est encore plus grand quand le poète oblige le monde à devenir, au delà même d'un monde du regard, le Monde de la parole.<sup>4)</sup>

그러나 우리는 막바로, 아름다운 것을 보는 화가에 의해 관조된 세계에 몽상가가 가지고 오는 이 존재의 전복으로 되돌아온다. 그러나 몽상가의 세계에 있어서 시인이 세계로 하여금 눈으로 보이는 세계 너머의 파롤의 세계가 되기를 강요할 때 이 전복은 더욱 더 커진다.

우주적 몽상의 정점에서 하는 시인의 탐색은 언어의 우주를 구성하게 한다. 그 결과 몽상이란 세계와의 대화하는 것이 되고, 그 몽상 속에서 ‘몽상가는 세계에게 말을 하고, 세계는 그에게 말을 하게’<sup>5)</sup> 된다. 몽상을 통하여 세계와 대화하는 몽상가는 자신의 존재와 세계와의 일치감을 느끼게 되고 그것은 곧 몽상가의 존재양식이 된다. 몽상의 과정속에서 세계와 일체를 이룬 몽상가에게 있어서는 몽상과 언어가 구별되지 않는다. 그것은 애초에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몽상의 근본을 이루고, 몽상을 전개해나가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Où est l'être dominant de la rêverie parlée ? Quand un rêveur parle, qui parle, lui ou le monde? ...« Tout l'être du monde, s'il rêve, rêve qu'il parle. »<sup>6)</sup>

말하여진 몽상의 주체는 어디 있는가? 몽상가가 말을 할 때, 누가 말을

2) G. Bachelard, *La Poétique de la rêverie*, p. 5

3) C.f. *La Poétique de la rêverie*, pp. 160-161

4) *ibid.* p. 160

5) *Op. cit.* p. 160

6) *Ibid.*, p. 161

하는 것인가? 몽상가인가, 세계인가?...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가 꿈을 꾸다면, 말하는 것을 꿈꾸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에 대한 바슐라르의 우선권 부여는 사실, 서구철학의 전통인 로고스중심주의와 무관하지 않다. 그에게 있어 이미지는 ‘로고스의 사건 événement du logos’<sup>7)</sup>이고 ‘로고스의 현상 les phénomènes de logos’ 이다.<sup>8)</sup> 모든 것은 언어로 이루어져 있고, 언어 이전의 상태는 생각할 수 없다. 한마디로 바슐라르에게 있어서 로고스는 인간을 구성하는 모든 것이다.

En thèse générale, nous pensons que tout ce qui est spécifiquement humain dans l'homme est logos. Nous n'arrivons pas à méditer dans une région qui serait avant le langage.<sup>9)</sup>

일반적으로 우리는 인간의 내부에서 특별히 인간적인 모든 것은 로고스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언어 이전이 될 수 있는 영역은 생각할 수도 없다.

이렇듯 바슐라르의 언어 특히 로고스에 대한 우선권의 부여는 기존의 서구 형이상학이 지향해 왔던 로고스의 전통과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바슐라르의 로고스는 그들과 근본적인 차원에서 궤를 달리 한다. 서구의 전통적 형이상학이 로고스를 크게는 사물의 존재를 규정짓는 보편적인 원리로 파악하고, 구체적으로는 인간의 분별력과 이성, 또는 논리적 추론의 의미등으로 한정하여 절대 진리의 대상으로 여겨왔다면, 바슐라르는 로고스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 능력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상상 능력에 주안점을 둔다. 이러한 바슐라르의 로고스에 대한 이해를 잘 나타내 주는 예 중의 하나가 로고스페르logosphère, 즉 언어로 만들어진 세계, 또는 언어가 만드는 심리적 공간이다.

7) G. Bachelard, *La Poétique de l'espace*, p. 7

8) Ibid., p. 180

9) Ibid., p. 7

## 2. Logosphère

상상력의 활동에 있어서 언어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바슐라르의 인식은 사실 그가 이미지와 상상력 연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몽상과 라디오」<sup>10)</sup>라는 글에서 그는 라디오 방송이 새로운 우주적 몽상의 여건을 만들어 낸다고 보았다. 바슐라르는 베르그손이 사용했던 생물계biosphère의 예에 비추어, ‘언어가 주가 되는 세계’라는 개념을 만들어 내기 위해 로고스페르logosphère라는 용어를 만들어 낸다.

La radio est un problème tout à fait cosmique : toute la planète est en train de parler. Mais il va falloir définir un concept.

Le concept est le suivant : les bergsoniens ont parlé d’une biosphère, c’est-à-dire d’une couche vivante où il y a des forêts, des animaux, des hommes même. Les idéalistes ont parlé de la noosphère, qui est une sphère de pensée. On a parlé de la stratosphère, de la ionosphère : la radio, heureusement, bénéficie d’une couche ionisée. Quel est le mot qui convient pour cette parole mondiale ? C’est la logosphère. Nous parlons tous dans la logosphère. Nous sommes des citoyens de la logosphère.<sup>11)</sup>

라디오는 전적으로 우주적인 문제이다. 지구 전체가 말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개념을 하나 정의해야만 할 것이다.

그 개념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베르그손주의자들은 숲과 동물들, 인간들이 있는 살아있는 지층을 가르키는 생명계biosphère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상주의자들은 사색의 계계를 의미하는 정신계noosphère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성층권stratosphère, 전리층ionosphère라는 용어도 있다. 다행히도 라디오는 전리층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전 세계적 말에 합당한 용어는 무엇일까? 그것이 로고스페르logosphère이다. 우리는 모두 로고스페르 안에서 말하고 있다. 우리는 로고스페르의 시민들이다.

10) G. Bachelard, *Le droit de rêver*, pp. 216-223

11) Ibid., p. 216

바슐라르는 라디오 방송이라는 현상을 인간 정신활동의 일상적 구현을 보고 있다. 베르그손의 생명계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내포하는 개념인데 비해서, 바슐라르의 로고스페르는 철저하게 인간의 범주에 국한되어 있고, 구체적으로는 인간 정신활동psyché의 표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그는 현대 과학기술인 라디오를 단순한 정보의 문제나 통신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세계를 명확히 드러내는 기술로 보는 것이다. 라디오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은 통신의 문제에 있어서 과거와 비할 데 없는 도움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전 세기보다 훨씬 수월하게 언어의 우주를 구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라디오를 통해서 모든 언어가 들려오지만 바벨탑의 시대와 같이 서로 뒤섞이지는 않는다. 수많은 말들이 오가더라도 서로 혼동될 염려없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라디오는 20세기의 새로운 대화의 장場이 된 것이다. 18세기에는 카페가 이 대화의 장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카페는 매우 한정된 공간에서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카페 안은 항상 소란스러웠기 때문에 한쪽 구석에서 하는 말은 다른 쪽 구석에서는 들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라디오에 의해 활성화된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차분하게 들을 수 있다. 당시로서는 신기술이었던 라디오에 대한 바슐라르의 생각은 미래지향적이다. 라디오에 의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바슐라르는 언어가 우주적 차원의 주도권을 잡게 된 현상으로 이해한다. 다시말해 라디오는 단순한 일상생활의 의사소통 도구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주적 차원의 몽상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바슐라르의 인식은 분명하게 인문학적이다. 바슐라르에 의하면 라디오는 무의식을 표현해내는 세계의 소리로서 인간을 재창조하는 로고스페르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무의식에 의해서 로고스페르의 시민으로써의 연대감을 구현해 낼 수 있는 것”<sup>12)</sup>이다.

로고스페르는 바슐라르가 말하는 ‘말하는 세계monde parlant’<sup>13)</sup>의 기술적 구현체이다. 몽상가가 세계를 꿈꿀 때, 그는 혼자서 제멋대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세계와의 대화를 통해 꿈을 꾸다. 예를 들어 몽상가

12) Ibid., p. 218

13) G. Bachelard, *La Poétique de la rêverie*, p. 161

가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몽상에 잠겨있다면, 그의 몽상은 일방통행적인 형태가 아니다. 자연을 마주하고 있을 때 그는 자연에게 말을 걸고 자연이 하는 말을 듣는다.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연과의 대화를 통하여 몽상가의 몽상은 더욱 발전하게 된다. 시인은 이 자연이 하는 말을 듣고 시로써 옮기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시인의 말은 실은 시인을 통해서 들려오는 자연의 말, 세계의 말이다.

La rêverie poétique ranime le monde des premières paroles. Tous les êtres du monde se mettent à parler par le nom qu'ils portent. Qui les a nommés ? Ne se sont-ils pas, tant leur nom est bien choisi, nommés eux-mêmes ? Un mot en entraîne un autre. Les mots du monde veulent faire des phrases. (...) Dans la rêverie cosmique, rien n'est inerte, ni le monde ni le rêveur ; tout vit d'une vie secrète, donc tout parle sincèrement. Le poète écoute et répète. La voix du poète est une voix du monde.<sup>14)</sup>

시적 몽상은 원초적 파롤의 세계를 다시 활성화 시킨다. 이 세계의 모든 존재들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이름들에 의하여 말하기 시작한다. 누가 그들의 이름을 지었을까? 그들의 이름이 그렇게 잘 지어진 것만큼, 그들 스스로 이름을 지은 것은 아닐까? 한 단어는 다른 단어들을 이끌어 낸다. 세상의 말들은 문장을 만들고 싶어 한다. (...) 그러므로 우주적 몽상 속에서는 어떤 것도 무기력하지 않다, 세계도, 몽상가도. 모든 것이 은밀한 삶을 살기에, 모든 것이 진실 되게 말을 한다. 시인은 듣고 반복한다. 시인의 목소리는 세계의 목소리인 것이다.

라디오는 이러한 ‘세계의 목소리’를 실제 생활에 구현시켜 주었다. 라디오에 의하여 우리는 로고스페르, 즉 언어로 이루어진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다.

14) Ibid., p. 161-162

### 3. Logosphère와 Logocentrisme

자크 데리다는 자신의 저서 『그라마톨로지에 대하여 *De la grammatologie*』에서 로고스중심주의(Logocentrisme)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데리다는 기본적으로 서구 형이상학의 역사를 로고스중심주의라고 정의한다. 로고스는 고대 그리스어 ‘말하다 *legein*’의 명사형이며 ‘말한 것’을 의미한다. 이 로고스는 수많은 파생적 의미로 분화되어 서구 사상사에서 신의 말씀, 운명, 절대정신, 이성, 규범성, 논증 법칙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고, 궁극적으로 현실세계와 대립되는 진리 일반을 함축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즉 로고스는 진리의 기원이며, 진리 중의 진리를 의미하는 서구 철학적 사유의 토대이다.

데리다가 파악하는 서구의 철학은 근본적으로 이 로고스의 현전 *présence*를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그런데 이 로고스의 현전은 문자언어가 아니라 음성언어에 의해 구현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문자언어는 음성언어를 대리 표상하는 데 지나지 않고, 음성언어 말로 영혼의 상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로고스가 담고 있는 진정한 뜻은 음성언어, 그중에서도 표음문자를 사용하는 음성언어에 의해서만 표현될 수 있다. 데리다는 이러한 서구의 형이상학적 전통을 음성중심주의 *phonocentrisme* 또는 로고스중심주의 *logocentrisme*라 부른다. 데리다는 이러한 음성중심주의가 표음문자, 즉 서구 알파벳의 형이상학으로써 강력한 민족 중심주의를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metaphysique de l'écriture phonétique... qui n'a été en son fond  
... que l'ethnocentrisme le plus original et le plus puissant, en passe  
de s'imposer aujourd'hui à la planète.<sup>15)</sup>

음성언어의 형이상학은... 근본적으로... 가장 독특하고도 가장 강력한  
민족중심주의일 뿐이고, 오늘날 전 지구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서구의 형이상학은 자의적인 음성 중심의 알파벳 문자를 가장 진보적인

15) Jacques Derrida, *De la grammatologie*, pp. 11-12.

문자로 절대시하여 의미 중심의 표의문자들을 왜곡하고 격하시켜왔다. 결국 서구의 형이상학은 음성중심주의의 독단론에 지나지 않으며, 이 독단론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것을 구조화시키는 언어와 더 나아가 언어와 관련된 모든 개념들을 해체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 데리다의 생각이었다. 데리다가 로고스중심주의를 비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로고스중심주의가 가지고 있는 글에 대한 말parole의 우위라는 편견 때문이다. 글에 대한 파롤의 우위는 이미 고대 철학의 플라톤에서부터 나오는데, 플라톤은 파롤은 발화자로부터 나오는 직접적이고 생생한 것임에 반하여, 글은 기호라는 2차적인 체계로 환원된 이후에 다시 독자의 해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글로 씌여지는 순간 이미 발화자와 무관한 것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글은 원래의 발화자 의도와 다른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플라톤의 생각은 로고스중심주의의 핵심을 이룬다. 그러나 말이 글보다 우선한다는 이러한 가정은 그 자체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가정은 순수하고 확고한 진리가 발화자의 내부에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데리다는 말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말이란 항상 대화의 상대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화의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이 시시각각 변할 수 있고 그것은 발화자의 사고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우리는 발화의 과정을 통하여 사고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메를로 퐁티가 ‘언어가 없으면 사고도 없다’라고 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로고스중심주의는 결국 인위적으로 절대적 진리를 구축하고자 하는 독단적 서구 형이상학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로고스중심주의를 바슐라르의 로고스페르와 비교해 본다면 일정부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바슐라르의 로고스페르는 몽상과 관련이 있는 용어이고 몽상의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반면에 로고스중심주의는 서구 사상의 형이상학적 철학 담론에 속하는 개념이라는 데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바슐라르는 현대 기술발전이라는 현상에 대하여 심리학적인 해석을 부여하는 데 비해서, 로고스중심주의는 언어의 특성에 기반한 철학적 구조를 세우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념이 공통점을 갖는 것은 둘 다 언어와 말을 대상으로 하고 결정적인

것은 둘 다 감춰진 실재를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라는 것이다.

로고스중심주의가 언어의 본질을 파롤parole에 두고 있는 것처럼 바슐라르 역시 언어의 본질을 파롤에서 찾고 있다.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시적 언어는 파롤의 높이를 향한 열림이다”<sup>16)</sup>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바슐라르가 지향하는 파롤의 위상은 로고스중심주의에서 말하는 이성을 구현하는 도구로서의 파롤이 아니다. 파롤은 자신만의 고유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말하고자 하는 의지’의 본질을 이룬다.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표현하기 위하여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도식적인 설명일 뿐 실제로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즉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사유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화를 하지만, 발화를 계속해 나가는 동안 사유의 내용은 파롤 자체와 섞이게 되고, 그 내용도 파롤에 의하여 변화하게 된다. 결국 발화의 과정에 있어서 점차로 주도권을 잡아가는 것은 파롤 그 자체가 된다. 바슐라르는 이러한 현상을 로고스의 의지 속에서 일어나는 이성과 파롤의 변증법이라 말한다. 그는 언어 현상에는 언제나 이성과 파롤의 대립이 개입된다고 본다. 즉 우리들의 발화 행위는 이성과 파롤의 끊임없는 대립과 혼합의 결과인 것이다.

Ces phénomènes premiers de la volonté de logos sont bientôt pourvus de la dialectique de la raison et de la parole, de la dialectique de ce qui réfléchit et de ce qui s'exprime. Il est d'ailleurs curieux de constater que raison et parole peuvent dégénérer en se fondant dans un même verbalisme, dans une tradition inerte de la pensée et du langage.

이 로고스의 의지라는 원초적인 현상들은 막바로 이성과 파롤의 변증법, 즉 사유하는 것과 자신을 표현해내는 것의 변증법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성과 파롤이 동일한 언어편중주의(언어적 표현) 안에서, 또 사유와 언어라는 무기력한 전통 안에서 서로 혼동되면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sup>17)</sup>

16) G. Bachelard, *Fragments d'une poétique du feu*, p. 49

17) G. Bachelard, *L'air et les songes*, p. 278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파롤이 단순한 사유의 도구가 아니라 인간 정신활동의 본질인 이미지의 구현체이기 때문이다. 바슐라르에게 있어서 파롤이란 확고한 개념들의 모음이 아니라 암시와 비유, 비약과 생략이 살아있는 우리들의 상상력의 표현이다. 즉 파롤은 우리들의 상상력이 활동하는 장이며, 새로운 이미지들이 만들어지고 솟아나오는 장이다. 바슐라르식으로 표현하자면 인간은 말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면서 꿈을 꾸는 것이다. 이때의 이미지들은 시각적 이미지들이 아니라 총체적인 정신적 이미지들이다. 그 이미지들은 역동적 비약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 이미지의 역동성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존재의 이유 즉 존재론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어와 로고스의 중요성에 대한 바슐라르의 인식은 서구 형이상학자들과 동일하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르다. 바슐라르는 로고스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로고스중심주의와는 대척점에 있는 것이다.

#### 4. 몽상과 Logosphère

인간의 상상현상은 근본적으로 그 구현 양태에 있어서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상상력이 언어에 종속되거나 그 반대의 결과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상상력의 활동 자체에는 언어의 개념이 들어있다. 언어는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상상력의 근원을 이루는 기초요소이다. 언어와 이미지는 서로 종속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는 개념이다. 왜냐하면 이미지와 언어는 서로 대체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의 사유는 언어를 매개로하기 때문에 흔히 언어는 사고의 기반이라 말해진다. 즉 언어가 없으면 사고도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비슷한 조건이 몽상의 조건에도 해당이 된다. 언어는 몽상의 기초적인 조건이 되는 것이다. 몽상 속에서 언어는 몽상가와 세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몽상은 이성의 구속을 받지 않는 원초적이고 주관적인 상태이기 때문이고, 몽상은 습득된 지식에 선행하기 때문이다. 바슐라르에게 있어서 모든 창조적 상상력의 예술은 언어라는 형태로 솟아나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 바슐라르

의 이러한 언어에 대한 태도는 샤갈의 작품 해설에서도 잘 드러난다.

Les couleurs deviennent des paroles. Qui aime la peinture sait bien que la peinture est une source de paroles, une source de poèmes. (...) Les premiers animaux de la genèse sont les mots d'un vocabulaire que Dieu enseigne aux hommes.

색채들은 말들이 된다.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림이 말의 원천이라는 것을, 시의 원천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동물들은 신이 인간에게 가르쳐 준 어휘의 말들이다.<sup>18)</sup>

바슐라르가 강조하듯이 몽상은 수면상태로의 과정이 아니다. 몽상이 꿈의 연장선에 있는 것도 아니다. 몽상가는 몽상의 경계를 넘어 꿈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꿈과 몽상은 서로 간에 어떠한 연속성의 관계도 없는 엄밀하게 말해 전혀 다른 정신현상이다. 전자는 무의식의 세계에 속하고 후자는 의식의 세계에 속한다.<sup>19)</sup> 이러한 몽상의 특성 중의 하나는 몽상은 언어가 개입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몽상은 언어에 의해 전개되기도 하지만 언어에 의해 그 여건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슐라르의 로그스페르는 언어가 만들어내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언어만으로 만들어내는 몽상의 공간이다. 라디오 방송이라는 현대적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정보의 전달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인간에게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 대화의 장을 마련해 준다는 데 본질이 있다. 즉 라디오 방송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뛰어넘어 인간에게 휴식과 몽상의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는 대화는 몽상의 장애 요인이 아니라 몽상의 플러스 요인이 된다. 이러한 몽상의 예를 바슐라르는 집의 예를 들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sup>20)</sup> 집은 모든 개인의 무의식에 뿌리박혀 있는 원형이다. 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밀성intimité의 원형을 이루고 있다.

18) G. Bachelard, *Le droit de rêver*, p.16

19) 물론 이때의 의식은 합리주의에서 말하는 ‘명징한 의식’과는 거리가 있다. 이때의 의식은 ‘몽상의 의식’이라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의식이다.

20) Ibid., p. 219

집은 우리에게 안식처와 피난처를 제공해주고, 유년기의 추억을 담고 있다. 바슐라르가 말하는 집의 원형은 “무의식이 살고 있는 깊은 평온함이 있는 장소”<sup>21)</sup>이다. 예를 들어 암소는 너무 밝은 외양간에서는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 적당히 어둡고 창문에 거미줄도 쳐있는 환경에서 소들은 편안함을 느끼고, 우유도 잘 생산해 낸다. 이와 같이 모든 생명체는 자신만의 내면성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디오가 청취자들에게 내밀한 몽상을 위한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내밀한 장소인 집의 테마가 몽상가들에게 몽상의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과 같다. 로고스페르의 원칙은 이러한 편안한 몽상의 공간의 제공이다. 라디오를 통한 로고스페르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몽상의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몽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정신적 삶의 뿌리와 같은 것이다. 생활의 형태에 따라 삶의 장소는 변할 수 있지만 인간은 항상 그곳에서 자신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L’homme est une plante qui peut se transplanter, mais il faut toujours qu’il s’enracine.<sup>22)</sup>

인간은 옮겨 심을 수 있는 식물이다. 그러나 항상 뿌리를 내려야 한다.

## 5. 나오는 말

바슐라르는 언어를 통하여 몽상을 구현하고, 특히 언어를 통한 몽상을 중시한다. 반면에 데리다는 진리를 가장한 서구의 로고스중심주의를 거부한다. 외면상으로 둘의 연구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과 국면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기존의 도그마를 거부하고 기존의 형이상학 체계가 강요하는 한계를 뛰어 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바슐라르의 로고스페르는 데리다가 말하는 로고스중심주의를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이러한 로고스페르의 개념은 TV와 멀티미디어가 라디오 방송을 대체

21) Ibid., p. 221 “ce milieu modeste profond où vit l’inconscient.”

22) Op. cit.

한 오늘날에는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로고스페르의 개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바슐라르의 로고스페르의 개념을 차용하자면 오늘날은 이미지스페르 imagesphère 또는 비디오스페르 vidéosphère의 세상이라 할 만하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수많은 이미지의 홍수에 치여 있는 현대인들은 갈수록 차분하게 몽상에 젖어들 시간을 박탈당하고 있다. 그 결과 현대사회는 무차별적인 이미지의 범람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 모든 정보전달과 가치판단이 갈수록 단순한 시각적 이미지에 의존하게 되는 현대사회는 갈수록 현대인들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있다.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저급한 시각이미지로 이루어진 현대의 비디오 문화는 궁극적으로는 현대인의 판단의식을 마비시킨다. 수동적인 이미지의 소비자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미지 제작자들의 의도에 거부감 없이 끌려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광고매체를 통해 동일한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는 소비자들은 상품을 선택할 때 자신의 판단 기준에 의해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에 각인된 이미지의 상품을 선택하게 된다. 소비자들은 그것이 스스로의 선택이라 믿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지 제공자의 의도에 끌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현대의 소비자들은 동일한 관심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의식 없는 집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TV를 통해 김연아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금메달 소식, 선거전의 혼탁한 모습, 장애인 복지시설의 부패한 모습 등을 연속된 이미지로 보게 되는 소비자들을 개인적 가치판단의 여유가 없이 모든 것을 똑같은 가치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결과 모든 것을 동일한 ‘무관심의 눈’, 즉 ‘죽은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대 이미지의 폭력이야말로 이미지스페르의 가장 큰 부작용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스페르의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몽상을 통한 건전한 이미지의 위상을 되찾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시각이미지 일변도의 이미지 문명이 아닌 창조적 이미지의 가치를 우선하는 문명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창조적 이미지는 바슐라르가 강조하는 고독한 몽상의 상태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바슐라르가 말하는 로고스페르는 그것이 등장했던 시대와는 또 다

른 의미에서 활성화 되어야 할 가치이다.

### ❖ 참 고 문 헌

- Bachelard, G., *L'air et les songes*, Paris, José Corti, 1943  
\_\_\_\_\_, *La Poétique de l'espace*, Paris, PUF, 1957  
\_\_\_\_\_, *La Poétique de la rêverie*, Paris, PUF, 1960  
\_\_\_\_\_, *Le droit de rêver*, Paris, PUF, 1970  
\_\_\_\_\_, *Fragments d'une poétique du feu*, Paris, PUF, 1984  
Derrida, Jacques, *De la grammatologie*, Paris, Minuit, 1967.  
\_\_\_\_\_, *L'Écriture et la différence*, Paris, Seuil, 1967  
Durand G., *Les Structures anthropologiques de l'imaginaire, introduction à l'archétypologie générale* (1960), Dunod, 1993  
\_\_\_\_\_, *L'Imagination symbolique*, Paris, PUF, 1964  
\_\_\_\_\_, *L'Imaginaire*, Paris, Hatier, 1994  
Foucault, M., *Les mots et les choses*, Paris, Gallimard, 1993  
Thomas Joël, *Introduction aux méthodologies de l'imaginaire*, Paris, Ellipses, 1998.  
Wunenberger, J.-J., *Philosophie des images*, Paris, PUF, 1997.  
\_\_\_\_\_, *L'imaginaire*, Paris, PUF, 2003.

## ❖ ABSTRACT

## Logosphère de G. Bachelard et les rêveries de langue

HONG, Myung-Hee

La langue est un des éléments privilégiés de la rêverie chez Bachelard. La langue est une force fondamentale de l'imagination. D'une part, elle garde son propre valeur dans le processus de l'imagination, et d'autre part elle forme sa propre image. La priorité de langue chez Bachelard a, en effet, quelque liaison avec la notion de Logos qui avait été traité depuis longtemps comme vérité éternelle dans la métaphysique occidentale. Cependant, la notion de logos de Bachelard se diffère de celle de métaphysique occidentale. Tandis que la métaphysique traditionnelle traite le logos comme un but éternel de sa méditation, Bachelard donne l'importance sur la capacité linguistique et imaginaire du logos.

Le logosphère est un des exemples qui montre bien la différence entre la notion de logos de Bachelard et celle de métaphysique traditionnelle. Le logosphère est un néologisme de Bachelard qui est fait pour désigner l'atmosphère verbal de la société contemporaine grâce à l'émission de radio. Bachelard comprend le phénomène de radio en tant que réalisation de Psyché dans la vie quotidienne. C'est grâce à la technologie moderne que nous pouvons avoir l'univers de langue plus facilement par rapport aux siècles précédents. Selon Bachelard, la radio n'est pas un simple instrument de communication. C'est une porte pour entrer dans la rêverie universelle. La radio est une voix du monde qui exprime notre inconscient. Quand un rêveur rêve, son rêverie se développe en se discutant avec le monde. Alors, quand nous rêvons, nous parlons au monde et nous écoutons du monde, de sorte que nous devenons les citoyens du logosphère.

Dans son oeuvre *Sur la Grammatologie*, J. Derrida critique la métaphysique occidentale en la intitulant logocentrisme. Derrida pense que la philosophie occidentale a comme le but final la présence de logos. Cette présence de logos ne peut être réalisée que par la langue de la voix, non pas par la langue de caractère. D'où vient le logocentrisme ou le phonocentrisme de métaphysique occidental. Mais Derrida pense que le logocentrisme n'est qu'un autre aspect de l'ethnocentrisme étroit de l'occident.

La notion de logosphère de Bachelard a quelques ressemblances avec logocentrisme par ses apparences. Cependant, elles ont une différence fondamentale depuis leur départ. Tandis que logocentrisme traite la parole en tant que manière d'expression de raison qui est une puissance fondamentale de l'homme, Bachelard pense que la parole est un résultat d'une opposition et fusion de notre raisons et parole. Bachelard pense que la parole est une réalisation de l'image qui est l'essence de notre psyché. Pour lui, la parole, la quintessence de logosphère, est le champ de l'imagination d'où jaillissent les images. C'est pour cela que logosphère se situe à l'antipode de logocentrisme. Logosphère nous fournit un espace de rêverie de langue. Notre société contemporaine fourrée des images visuelles creuses est dépouillée de plus en plus des espaces de rêveries. C'est une des raisons que le logosphère de Bachelard doit être réactivé aujourd'hui.

---

#### Key Words

로고스페르, 바슐라르, 언어적 몽상, 이미지  
logosphère, Bachelard, rêverie de langue, image

논문접수일: 2011. 10. 24.

심사완료일: 2011. 12. 02.

게재확정일: 2011. 12. 09.